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통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며 숨이 가빠진 우리를 불러 주님을 고요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게 하시고,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쉬움과 후회와 불만의 감정을 기도로 다스리게 하시고 변함 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함께 살아가기'에 서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너무 쉽게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그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눅2:14 인도자

♠ 교 독 문 117. 구주 강림(3)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00(통235).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함께

성경봉독 I. 왕하23:1-3 김제우 학생

..... II. 마5:17-20 광상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나를 읽는 책 손성현전도사

..... II. 말씀을 길로 삼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하나님의 은혜 (색소폰 연주) 윤주원 권사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정성껏 실천하며 사십시오. 말씀이 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 다 함 께 : 아멘. 약속이 담긴 말씀보다 순간의 감정에 쉽게 이끌려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으며 살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009년 당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
	기도 : 안종일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황경순 집사	고정한 학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김진경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송동준 조관행 장혜숙 이영란 홍선희
	헌금위원	한상익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거룩한 밤”을 거닐다 - 독일의 대림절과 성탄절 I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향을 찾게 하심이라 - 힐데가르트 폰 빙엔

대림절이 가까워지면서 유럽의 크고 작은 도시들은 춥고 긴 밤을 밝혀줄 화려한 빛으로 외양을 치장한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나치게 현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는 이의 마음을 사뭇 들뜨게 만드는 환한 조명들이 내걸린다. 겨울의 초입에서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에 몸을 웅크리다가도 문득 미소 한 번 머금게 만드는 빛, 빛, 빛으로 유럽의 도시들은 축제 준비를 시작한다. 그저 하룻밤 화끈하게 떠들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축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짹짹 틈을 내어 조금씩 조용히 즐기면서 절정의 시간을 향해 다가서는 축제다. 장엄하게 타오른 축제의 불꽃이 다음 날이 되면 허무한 열정의 찌꺼기로 변하여 다시 일상에게 자리를 내주는 축제가 아니라, 은은한 여운으로 살아남아 다음 축제로 이어지면서 추위와 어둠에 지치지 않게 해주는 축제 - 바로 대림절과 성탄절 축제다.

대림절기의 유럽에서 가장 큰 볼거리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성탄절 시장’ (Weihnachtsmarkt)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도 유럽의 도시에는 크고 작은 장이 선다. 보통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물, 예컨대 유서 깊은 교회 건물이나 시청 주변 큰 광장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장이 서는 것이다. 대림절 시작 전후로 그 광장 한복판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독일에서는 ‘크리스트 나무’ = ‘그리스도 나무’)가 세워지고 ‘성탄절 시장’의 개장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다. 보통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앞에 나와서 짧게 인사를 하고 개장을 선언함으로써 4주에 걸친 성탄절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성탄절 시장은 사실상 본격적인 성탄절 전에 다 파하기 때문에 ‘대림절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 지나가는 사람의 시각과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축제의 분위기를 절로 자아낸다.

원래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겨울 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터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장은 유럽의 성탄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펼쳐지는 성탄절 시장에서 사람들은 지역의 특색과 전통 문화가 배어있는 물품들을 구입하고, 또 그런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글뤼바인’(Glühwein = 설탕, 꿀, 향료를 넣어 데운 적포도주)을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고, 각양각색의 초콜릿이나 사탕, 케이크 등을 살 수도 있다. 각 도시가 자랑하는 특산품이 판매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쓰이는 신기한 물품을 놓고 파는 가판대도 즐비하다.

흥청망청 사고파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탄절 시장은 대개 예수 탄생의 의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다. 갑자기 성 니콜라우스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살아 있는 양과 염소와 나귀가 있는 말구유를 전시해 놓을 때도 종종 있다. 지나가던 아이들은 거기에 한참 멈춰 서서 마구간의 정취를 그대로 느끼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한 장면을 인상 깊게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시장 풍습을 자랑하기 위해 몇몇 도시는 성탄절 시장을 아예 중세풍의 시장으로 꾸민다. 아이들은 어릿광대를 만나 그의 묘기에 넋이 빠지기도 하고, 중세 분위기가 나는 마차를 타보기도 하고, 직접 활쏘기를 해볼 수도 있다. 제3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판매와 모금 행사를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성탄절 시장의 한 풍경이다.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인들의 모금을 독려하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성탄절 시장이 크게 열리는 광장 근처에는 거의 예외 없이 역사가 오랜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고요함을 누리기도 한다. 그런 예배당 한 칸에는 소박하면서도 매력 있는 성탄 말구유가 있어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각 교회마다 성탄 말구유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작은 작품을 제작한 교인이나 지역 예술가의 정성과 기예를 적극적으로 알려 사람들이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위풍당당하게 군림하는 초자연적 절대자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성탄 말구유 장식만한 것이 없다. 확자지결 시끄러운 성탄절 시장을 거닐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고요 속에서 말구유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따뜻함은 독일 대림절의 그윽한 멋과 맛이다.

■ 마/음/으/조/워/는/글

날 개

개미떼에게 끌려가는
배추흰나비 더러워진 날개를 보고
알 것 같았다.
나비가
삐뚤삐뚤 나는 이유를.

온갖 때에 절어
기름걸레처럼 더럽혀진
나비의 날개는
먼지 낀 공중을
구석구석 닦고 다녔다는 것을

추레한 옷을 입고
구석구석 빌딩 청소하는 할머니도
한 때는
배추흰나비 눈부신 날개였다는 것을

- 곽해룡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시내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강인식 김정숙
 김준우 우순덕 권미숙 김경연 김신옥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정섭 김지호 김훈동 유경순 박영희 박창운 허정운 배근수 김금순
 백요현 윤미경 윤수진 임고운 조관행 홍선희 정한구 왕영순 조병무
 송양진 김재흥 최희영 김성한 조영순 양재성 임미심 전세종 김정민
 전해리

월정헌금:

김영순 김 크 김남중 오복순 김미순 김종철 고영애 송의섭 안길상
 이형숙 이재문 이봉배 이성범 이인웅 오송경 전영규 김경수 정두리
 최윤희 이종현

감사헌금:

김윤숙 이현순 권미숙 오정숙 전성오 전세종 김정민 김신옥 문복순
 방 준 김종락 박영신 김성수 송동준 김진경 한지혜 전해리 무명3

녹색꿈 헌금:

장원호 박성희 김준우 이재문 임창선 무명

생일감사헌금:

민동혁 김수은 임미심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차혜심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운	김정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심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서주일** :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 **당회** : 오늘 오후 2시 친교실에서 2009년도 당회가 열립니다. 2008년 당회 이후에 등록하신 분 중에서는 '신앙다지기'를 이수하신 분만 당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3. **연합속회** : 이번 주 속회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빌립보 속 식사담당 : 엠마오 속
4. **사과** : 생협을 통해 사과분양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과를 받아 가십시오.
5. **새교우환영회** : 다음 주일(20일)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올해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6. **신앙실천** :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 떡 : 김준우 목사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다음 주 : 나사렛 속)

* 설거지 봉사 : 윤종권 이정현 (다음 주 : 방문성 오재환)

새교우 소개		
김종락(3남)	김승일(5남)	김경선(8여)
조हन권(5남)	박아영(8여)	이진희(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